

당신은 사이버시민성(cybercivility)을 갖고 있습니까?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시민적 태도 문제 올바른 사이버시민성 교육 시급

IT 기술의 발달은 많은 사람들의 소통의 장을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징 커뮤니케이션은 교육계를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 도구가 되었고,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와 문화를 형성해간다.

간호교육 분야에서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과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학습성과 달성을 위해 e-learning이나 SNS 활용 등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협동학습이나 정보공유를 위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Electronic Learning Management System(e-LMS)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은 간호교육 프로그램 확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용자의 사이버시민성(cybercivility)이 결여된 비시민적 행동들로 인해 그 유용성이 침해받고 있다.

사이버시민성(cybercivility)은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로, 사이버문화의 존중과 책임감을 포괄하는 미덕이나 특성을 의미한다. 건강한 아이디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의사소통하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보호와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반면 사이버비시민성(cyberincivility)은 사이버 환경에서 개인적, 전문적, 사회적 안녕을 방해하고 직·간접적인 대인관계를 위반하는, 개인의 무례하고 무감각하며 유해한 행동을 포함한 포괄적 현상을 의미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뜻하는 사이버폭력(cyberbullying)은 사이버비시민성의 하위영역으로 볼 수 있다.

사이버비시민성의 결여로 인한 부정적인 문제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포럼, 이메일, 텍스트나 메시지, 각종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결과(방송통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32.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6.8%p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의 ‘Civility in America : A Nationwide Survey’ 결과에서도 미국인들이 비시민적 행동을 경험하는 횟수가 201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8년 현재 매주 평균 10.6회로 나타났으며,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경험이 5.4회로 오프라인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또 다른 사회이며, 우리는 사이버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익명성(anonymity)을 띠고, 보이지 않으며(invisibility),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지 않아도 되는 비동시성(asynchronicity) 등의 특성 때문에 수시로 가깝지만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때로는 의도치 않았던 나의 표현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며, 발달된 기술의 혜택은 누리지만 타인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에는 안일함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생활 침해나 사이버폭력 등의 잠재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시민성의 함양이 더욱 요구된다.

건강 관련 전문가들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대상자의 정보나 업무에 대한 불만, 의료서비스 광고, 공격적인 언어사용, 편파적인 의견제시 등은 전문가의 표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내용, 이해관계 충돌, 관련 전공 학생을 포함한 건강전문가의 윤리적 위반 등이 사이버비시민성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뉴스를 통해 환자의 수술 및 간호 관련 사진이 SNS에 유포된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의료인들의 사이버비시민성 부재가 의료인의 윤리교육 및 환자의 정보관리능력 부재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진 바 있다. 개인의 윤리적 철학이나 가치관이 돌봄을 제공하는 대상자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간호학에서는 사이버비시민성에 대한 고찰이 더욱 중요시 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간호사 또는 간호학 전공자의 SNS 사용 형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트위터 사용에 대한 분석에서는 간호사와 관련된 트위터 내용의 삼분의 일 이상이 비시민적 내용이었으며, 욕설, 노골적인 성적 발언, 인종 차별, 건강 관련 전문가에 대한 공격, 미국 의료 정보보호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위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시민적 태도는 사이버비시민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며, 사이버비시민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전문인력 간의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첨단통신기술과 의료기술의 결합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임상이나, 정보기술과 소셜미디어가 넘쳐나는 교육현장에서는 사이버비시민성의 확립이 시급하다.

임상현장의 관리자 및 간호교육자는 개인적 차이를 고려해 비시민적 행동의 잠재적 위험 및 유발요인을 확인하고, 사이버비시민성에 대한 지식정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윤리적, 법적, 문화적, 학문적인 관점에서 얻어진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올바른 사이버비시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 **장 운 정** (Jennie C. De Gagne)
미국 듀크대 간호대학 부교수
PhD, DNP, RN-BC, CNE, ANEP, FAAN
- **홍 민 주**
국립경남과학기술대 간호학과 조교수
PhD, RN

육지 간호사의 제주도 병원 정착기



엄 효 정
한마음병원 간호사

제주도에 아무런 연고지가 없던 나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직장문제로 2016년 11월 제주도로 내려오게 됐다.

제주도는 여행지로만 생각했지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해보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나는 솔직히 제주도로 가지고 왔던 남편의 말에 많은 고민이 되고 막막하기만 했다. 사교성이 많지 않았고, 힘들게 서울의 큰 병원에 취직해 다니고 있었기에 제주에서의 생활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다.

제주도에서의 나의 첫 직장 ‘한마음병원’. 긴장하며 첫 출근을 하던 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신규 때 처음 병동에 발령을 받았을 때만큼 긴장되고 두근거렸다. 이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더 앞섰다.

각 병동 부서를 돌며 선생님들께 인사를 하면서 느낀 병원의 이미지는 ‘여기는 참 가족 같은 분위기구나’였다. 직원을 한 명 한 명이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지내기는 힘든데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지내는 것이 좋아 보였다.

반면 거의 다 같은 학교 출신들이 많은 이

병원에서 ‘내가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어색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병동의 모든 선생님들은 나를 반겨주셨고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오히려 제주도에 온 후 지난다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고 신경써줘 정말 감사했다. 환자와 대화를 하다가 튀어나오는 사투리들에 당황하며 이해를 못하고 돌아와서 선생님들에게 다시 물어본 적도 있고, 제주도 육지의 다른 문화를 체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수간호사님께서 제주문화에 대해 많이 설명해 주시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제주도에 내려와서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평생녘 간호라는 시스템은 낯설면서 불편하기도 했다. 간호사 한 명에게 주어진 역할이 많고, 인력이 부족하고, 많은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처음에는 괴로움이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보다는 서로 많이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며 일을 하는 분위기가서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할 수 있었고, 정 많은 환자들 덕분에 내가 금방 이곳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한적하고 여유로운 제주도가 좋아지고 있다.

이따금 환자들과 선생님들과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제주사투리에 ‘내가 정말 조금씩 제주도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기도 한다.

병원이라는 힘들고 고된 곳에서 서로 도와주며 힘이 되어주고, 그런 외로움을 세심하게 알아주고 배려해주는 선생님들 덕분에 이곳 제주생활이 좋아지고 있으며, 그런 선생님들과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섬이라는 지리적 제한점과 모든 것이 서울과 비교해서 느리기만 한 것 같아 서울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사계절 항상 아름다운 제주도를 느낄 수 있는 자연, 정 많은 사람들과의 소중한 행복속 속에서 제주에서의 생활에 점차 만족을 느끼며 적응을 해가고 있다.

혈액암 어린이에게 골수 기증

화순전남대병원 박선주 간호사



혈액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 환자를 위해 골수(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사랑을 실천한 간호사가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내과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박선주(31) 간호사가 그 주인공.

박 간호사는 2010년부터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근무하며, 골수기증자 부족으로 힘겨워하는 혈액암 환자들을 사연들을 접해왔다. 제때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를 보기도 했다.

박 간호사는 골수기증 희망자로 등록을 했고, 몇 년이 흐른 후 2개월 전 한국조혈모세포

포은혈협회로부터 조직적합량원(HLA)이 일치하는 환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박 간호사의 골수기증 의향은 변함이 없었다. 유전자 상세검사와 건강검진 등을 거쳐 기증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최근 조혈모세포이식이 이뤄졌다.

퇴원을 앞둔 박 간호사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해졌다. 골수기증받은 8세 여자어린이의 감사 글이 담겨 있었다.

박 간호사는 “누군지 모르지만, 어린이 환자의 편지를 몇 차례나 되읽으며 가슴이 뭉클했다”면서 “새로운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게 돼 기쁘고, 아이가 얼른 건강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손길이 필요한 환자들 많은데, 알론 업무에 바빠서 그들을 돌보고 싶다”면서 중환자실 환자들을 걱정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간호사 전용 열린콜센터 널스톡 1588-6282

2019년 의료인 필수교육 주제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의료인은 필수교육(1개 주제 이상)을 면허신고시마다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필수교육 주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 필수교육 주제 |
|---------------------------------|
| - 의료윤리 |
| - 의료법령 |
| - 감염관리 |
| - 폭력·성희롱·성폭력예방 |
| - 장애인권장려* |
| - 응급상황대비교육(기본소생술, 전문심혈관 소생술 등)* |
| - 자살예방* |
| - 노인·아동학대예방* |

* 표시는 2019년도 추가된 필수교육 주제입니다.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경림 인쇄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주추소변경 (02)2260-2571 nurses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간호사회	(02) 2261-1711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09-6348	보건간호사회	(02) 525-7318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보건진료소협회	(02) 2296-7677
인천시	(032) 441-2825	전라남도	(061) 277-2292	보건교사회	(02) 527-3390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마취간호사회	010-2061-6471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62-6006	보혈심사간호사회	(02) 2263-1959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산 하 단 체	(02) 716-9030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90	가정간호사회	(02) 2267-5688
강원도	(033) 293-6417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노인간호사회	(052) 230-0735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편집윤리규칙을 준수합니다.



기억과 기록이 만났을 때 달나라로 간 소신



이낙진 지음
지식과 감성 / 1만3000원
유명서점·인터넷서점 판매

평범한 삶이 주는 행복 메시지

처음에는 그저 가게도나 그려주겠다는 생각이었다. A4 용지 서너 장이면 족할 것으로 짐작했다. 그러던 것에 어린 딸들 읽기 쉽게 하겠다고 살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다. 지극히 개인적 소사(小事)에 어설론 문체(文體)라 무엇을 어찌할 바가 아니었는데 “교육칼럼보다 재미있다”는 주변의 지나가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소신을 뒤로하고 달나라로 간 것이다.

저자 서문에서

‘가족 가치’에 대한 든든한 인식

《달나라로 간 소신》은 작가가 신문기자로서의 비판적 관음과 현실주의 사회의식을 표방해도 오히려 정서적으로 푸근하고, 설명하기 힘든 심미적 아름다움을 연연하게 거느린다. ‘가족 가치’가 빛어내는 건강한 사랑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사랑이 문맥의 뒤에서 또는 행간의 여백에서 향훈(香薰)처럼 스며든다. 그게 바로 이 산문집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 발문에서

NAVER 달나라로 간 소신 을 검색하세요.